

중국의 여성작가 장아이링의 《경성지련》《첫번째 향로》  
도시의 냄새, 그 홀림에 관하여

‘그녀는 마치 그녀 혼자 그곳에 있는 듯 난간에 앉아 있었다. 등 뒤는 광활한 남색의 하늘이었다. 조금의 찌꺼기도 없는—있기는 있다. 아래에 가라앉아 검고 번쩍거리고 자욱하고 시끌시끌한 한 조각이 있다—색, 그것이 바로 상하이이다. 여기에 다른 것은 없다. 단지 하늘과 상하이와 샹오한만 있을 뿐. 아니다. 하늘과 샹오한과 상하이이다. 샹오한이 하늘과 상하이 사이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손으로 등을 받치고 거친 시멘트 바닥 위에 엎드렸다.’ -〈심경〉 중에서

모든 도시에는 특유의 냄새로 그려지는 풍경이 있기 마련이다. 한 도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 냄새를 제 혈관 안에, 세포 속에 입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각인’의 위력은 그 도시를 떠나야 비로소 발휘된다.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을 때, 몸 안에 입력된 그것은 사소한 냄새의 빌미에도 예민하게 불려나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망막과 영혼을 지배한다. 떠나있는 자가 추억하는 도시의 냄새는 그래서 몽환적 그리움과 절망적 우울을 담고 있다.

장아이링(張愛玲·1920~1995)은 그런 도시의 냄새를 푹진하게 그려낸, 현대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가 중 하나다. 상하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20대 초반을 홍콩에서 보내고 30대 중반 미국으로 건너갔다. 20대 초반부터 전업 작가로 활동하며 〈첫번째 향로〉 〈재스민 차〉 〈경성지련(傾城之戀)〉 등의 빼어난 단편을 발표했다. 1949년에 수립된 중국 신정부를 거부하고 미국으로 떠났지만 75세의 나이로 로스앤젤레스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죽을 때까지 그녀는 고향을 잊지 못했다.

그녀가 평생 천착한 것은 도시의 여자와 남자 이야기였다. 상하이 출신의 주인공이 홍콩에서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과 고향에 대한 향수가 그녀 소설의 주조를 이룬다. 그녀에게 고향이란 흠냄새 나는 공간이 아니다. 1940년대의 중국 도시이다. 상하이의 중국인들은 미국 남부식 저택이나 아파트에 살면서, 유행하는 의상과 헤어스타일에 민감한 도시인이었다. 비오는 거리, 달밤의 산책, 화교나 혼혈아를 사랑하는 주인공, 치파오의 아름다움, 차가움 속의 혼란. 이런 묘사는 그녀의 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공간적 배경에 대한 일종의 이미지-도시의 우울함과 황량함-을 직조한다.

공간에 대한 작가의 이런 정서는 주인공들의 내면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도시인의 정신병적 징후와 타자화된 고독을 소름끼치도록 섬세하게 포착한다. 그녀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어서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고독을 느끼는 데 있어서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빠져든다. 자신의 죽은 어머니가 젊은 시절 사귀었던 남자의 딸에게 질투를 느껴 그녀를 폭행하는 청년(〈재스민 차〉), 불구의 부잣집 남자와 결혼한 다음, 돈에만 집착하는 삶을 살면서 아들과 딸의 정상적인 결혼 생활조차 교묘하게 방해하는 여자(〈황금 족쇄〉), 붉은 장미 같은 정열적이고 방탕한 여인과 사랑을 나누다가 막상 결혼은 흰 장미로 상징되는 전통적이고 순종적인 여인과 하는 이기적인 남자



《경성지연》 장아이링 지음 | 김순진 옮김 | 문학과지성사 | 375쪽 | 값 10,000원  
 《첫번째 향로》 장아이링 지음 | 김순진 옮김 | 문학과지성사 | 368쪽 | 값 10,000원

《붉은 장미와 흰 장미》, 아버지를 남자로 사랑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를 갈라놓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딸(《심경》).

그녀의 소설들이 공산 중국에서 사장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그녀가 그려내는 1940년대 상하이와 홍콩의 얘기에 중국인은 열광했다. 1944년 그녀의 첫 소설집 《전기》가 출간된 지 사흘 만에 매진될 정도로 그녀의 소설들은 격변기 중국인의 내면에 자리한 불안과 결핍을 건드리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표작 《경성지연》은 그나마 그녀의 소설들 중 가장 평범한 축에 들어간다. ‘도시를 뒤엎은 사랑’이라는 제목처럼 사랑에 빠진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이다. 스물여덟의 바이류쑤는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에 얹혀산다. 자신의 조카가 선보는 자리에 따라갔다가 상대 남자와 눈이 맞는(?) 바람에 홍콩과 상하이를 오가는 그녀의 파란만장한 연애기가 시작된다. 그녀의 남자 판 류위엔은 좋은 가문의 서출로 방탕한 남자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고전적 여인’에 대한 태초의 향수를 가지고 있고, 그의 눈에 비친 류쑤는 바로 그런 여인이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다. 여자는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는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둘은 계산하고 또 계산한다. 정작 두 사람을 이어준 것은 도시를 뒤엎은 ‘사랑’ 이 아니라 도시를 뒤엎은 ‘전쟁’ 이다.

‘홍콩 함락은 그녀를 도와주었다. 그러나 이 이치에 맞지 않는 세계 속에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누가 알겠는가? 또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그녀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큰 도시 하나가 넘어가버린 것인지, 수천 수만의 사람이 죽어가고, 수천 수만의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뒤이어 경천동지할 대개혁……류쑤는 결코 자신의 역사적인 지위가 어떤 미묘한 점을 지니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단지 빙그레 웃으며 일어나 모기향 접시를 탁자 밑으로 넣을 뿐.’ - 《경성지연》 중에서

작가는 결코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차라리 폐허가 된 홍콩에서 류쑤와 류위엔이 ‘불안’이라는 정서로 연대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데에 집중한다. 이 이기적인 도시 남녀는 전쟁과 같은 시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가 전쟁을 보는 관점은 ‘인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다.

장아이링은 ‘소설’을 의식화의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해 철저히 반대했던 작가이다. 그녀는 청말 대신 이홍장의 외증손녀라는 귀족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디에도 깃들 수 없었던 그녀의 방랑벽, 그 기저에는 중국의 신여성 제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와 실패한 봉건지식인인 아버지의 불화가 자리하고 있다. 자유와 사랑을 찾아 영국으로 떠난 어머니의 의지를 동경했지만, 동시에 아편 중독에 빠진 아버지의 나약함을 연민한 그녀였다. 파괴된 인성을 가진 남녀의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혁명’이나 ‘영웅’의 이야기보다 더욱 진실한 소통 방식이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만신창이가 되지 않는 감정은 없다. 그러나 둔평과 마 선생은 집에 돌아오면서도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떨어진 꽃과 같은 낙엽을 밟으며 함께 길을 걸었다. 둔평은 우체국 앞을 지날 때 그에게 잉꼬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 《남은감정》 중에서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 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신시기 문학’이 일어난다. 문학의 주체성 회복을 강조하면서 거대 담론에 대한 관심보다는 문학 자체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가 되면서 그동안 사장되었던 장아이링의 작품에 대한 평가도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 그녀가 1995년 로스앤젤레스의 한 아파트에서 죽은 지 일주일만 지나서야 이웃에게 발견되었다는 것과 그녀가 죽자마자 중국에서는 ‘장아이링 신드롬’이라 불리는 큰 반향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혹자는 공산 중국이 도미한 부르주아 여성 작가를 재평가 한 것에 대해 그 문화적 포용력을 높이 사기도 하지만 그녀가 남긴 문학 적 성취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폄훼될 수 없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녀 소설의 도시 냄새가 갖는 향수, 그리고 부박한 영혼들의 절망이 여전히 유효한 것은 길 위의 생을 살고 있는 우리네 삶, 그 피할 수 없는 영속성 때문은 아닐까. **[44]**